



손씻기 이렇게
9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에서 열린 위생교육에 참가한 유치원생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물바른 손씻기 요령을 배우고 있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대광여고 식중독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지난달 29일 광주시 남구 대광여고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식중독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남구보건소는 9일 급식 후 설사와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대광여고 학생 17명의 가검률을 역학조사한 결과 8명의 가검률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현재 대부분 완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

오염물 배출 20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영산강 수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80곳을 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꼴인 20곳이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위반 사업장 가운데 가축 분뇨와 폐수를 무단배출하는 등 9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안

이 경미한 11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BOD 20mg/l) 초과 2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무허가가 각 4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총 10곳 등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오는 24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농촌진흥청, 목포·여수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해경, 악덕업주 등 일당 6명 검거

30년 착취 '노예선'이 아직도...

지적장애인 수십명 전남·북 양식장 등 팔아

30년 착취 '노예선'이 아직도...

전남·북 바닷가에 수십년동안 지적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는 '노예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 지역 양식장은 힘든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생활 환경도 열악해 일 하려는 정상인들이 기피하는 탓에 지적장애인들을 유인해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시키던 악덕 업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같은 착취구조가 전남·전북지역 섬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9일 대를 이어 30년

간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외판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기거나 어선 등에 강제로 태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이모(47)씨 등 일당 6명을 악취·유인등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 중 이씨를 구속하고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낚시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은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총

책, 도집책, 관리책, 성매매 알선책으로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이씨 일당은 군산 시 소재에 한 여관을 운

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길거리 노숙자 등을 상대로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언했다.

이씨 등은 이렇게 찾아온 이들을 군산은 물론 목포, 신안 등 전남지역의 고기잡이 배와 외판 섬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30년 간 수억원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알선책 이모(53)씨는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화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갚아하기도 했다.

구속된 이씨는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가 관리했던 지적장애인 100여 명 중 작업이 가능한 70여명을 목포나 신안 등지의 선박과 섬 등에 팔아넘기고 지적수준이 낮고 주거지가 없는 30여 명을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일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 가운데 19살에 불과해 30여 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이모(47)씨와 4년간 강제노역을 한 최모(46)씨 등 의 사회적응연령은 모두 10세 미만이었다.

이들은 임금을 빼는 것은 물론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 등에서 나온 보상금도 받지 못했으며, 이씨 등은 이를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 수령자를 자신의 아들로 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복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9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에서 열린 위생교육에 참가한 유치원생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물바른 손씻기 요령을 배우고 있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조대 장례식장 운영 미끼 수억 챙겨

서울지검, 전 조선대 이사 구속기소

지난 2010년부터 난무했던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임대 관련 소문<본보기> 2010년 4월6일자 6면>이 결국 조선대 설립자 아들의 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9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빌미로 수억원 금품을 받아 행간 전 조선대 이사 박모(6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조선대 설립자 고(故) 박철웅 씨의 아들로, 지난 1988년 학내 분규로 교육부가 모든 이사의 선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이 사직을 읊었다. 이후 지난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식이사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설립자 측을 배제하고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분위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하되 이 사선임과정에서 이행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해당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이 조선대 운영권을 되찾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불법조업 中선원

하루 노역비

70만원→5만원

불법조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들에 대해 법원이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수감된 채 노역을 해야 할 이들의 일당을 대폭 낮춰 수감일이 크게 늘어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9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되고도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위모(47)씨와 이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4000만원과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판부는 이들의 하루 노역 일당을 기존 70만원에서 5만원으로 원천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동안 수감된 일수를 제외하고 650~750일 가량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곡성군수 비서실장 구속

광주지법 영장전담 신현범 부장판사는 9일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편의를 봄준 것과 관련 대가 명목으로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곡성군수 비서실장 안모(4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업체 2곳으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택시 착각 승차 거부 주먹질

○…만취한 30대 남성이 펌워는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해 탑승한 뒤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며 주먹을 휘둘렀다가 경찰 서행.

○…9일 남부경찰에 따르면 남모(31)씨는 지난 6일 밤 11시25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 세워진 전모(31)씨의 승용차에 올라타 전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전씨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해 승차한 후 “평소보다 많은 1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가 전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 경미한 11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BOD 20mg/l) 초과 2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무허가가 각 4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총 10곳 등이다.

순천의 일가족 화재 사망사건(분보기 3월27일자 6면) 용의자가 공개 수배 10일 만에 경찰에 불жал했다.

9일 순천경찰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부산 해운대의 한 꿈틀방에서 은신중이던 용의자 설모(41)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설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께 내연녀인 김모(여·41)씨와 김씨의 큰아들

에 근무중이었다. 경찰은 설씨가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살다가 범행과 동시에 행적을 감췄고, 일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용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있는 데다 김씨와 금전적 갈등을 빚어온다는 점에서 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설씨의 행방을 추적하다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 잠복해 있다가 은신 중이던 설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재혼으로 성이 다른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으며 남편은 당시 외국

에 근무중이었다. 경찰은 설씨가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살다가 범행과 동시에 행적을 감췄고, 일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용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있는 데다 김씨와 금전적 갈등을 빚어온다는 점에서 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설씨의 행방을 추적하다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 잠복해 있다가 은신 중이던 설씨를 검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이 경미한 11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BOD 20mg/l) 초과 2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무허가가 각 4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총 10곳 등이다.

순천의 일가족 화재 사망사건(분보기 3월27일자 6면) 용의자가 공개 수배 10일 만에 경찰에 불жал했다.

9일 순천경찰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부산 해운대의 한 꿈틀방에서 은신중이던 용의자 설모(41)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설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께 내연녀인 김모(여·41)씨와 김씨의 큰아들

에 근무중이었다. 경찰은 설씨가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살다가 범행과 동시에 행적을 감췄고, 일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용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있는 데다 김씨와 금전적 갈등을 빚어온다는 점에서 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설씨의 행방을 추적하다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 잠복해 있다가 은신 중이던 설씨를 검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이 경미한 11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BOD 20mg/l) 초과 2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무허가가 각 4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총 10곳 등이다.

순천의 일가족 화재 사망사건(분보기 3월27일자 6면) 용의자가 공개 수배 10일 만에 경찰에 불жал했다.

9일 순천경찰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부산 해운대의 한 꿈틀방에서 은신중이던 용의자 설모(41)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설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께 내연녀인 김모(여·41)씨와 김씨의 큰아들

에 근무중이었다. 경찰은 설씨가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살다가 범행과 동시에 행적을 감쳤고, 일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용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있는 데다 김씨와 금전적 갈등을 빚어온다는 점에서 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설씨의 행방을 추적하다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 잠복해 있다가 은신 중이던 설씨를 검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이 경미한 11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BOD 20mg/l) 초과 2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무허가가 각 4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총 10곳 등이다.

순천의 일가족 화재 사망사건(분보기 3월27일자 6면) 용의자가 공개 수배 10일 만에 경찰에 불жал했다.

9일 순천경찰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부산 해운대의 한 꿈틀방에서 은신중이던 용의자 설모(41)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설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께 내연녀인 김모(여·41)씨와 김씨의 큰아들

에 근무중이었다. 경찰은 설씨가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살다가 범행과 동시에 행적을 감쳤고, 일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용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있는 데다 김씨와 금전적 갈등을 빚어온다는 점에서 설씨를 유력한 용의자